

정답

2016년 3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3월 시행)
37.① 38.③ 39.⑤
2016년 3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3월 시행)
43.④ 44.⑤ 45.④
2016년 4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4월 시행)
34.① 35.④ 36.③
2016년 4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4월 시행)
43.① 44.⑤ 45.②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2016년 6월 시행)
25.④ 26.③ 27.④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2016년 6월 시행)
34.③ 35.④ 36.④ 37.③ 38.⑤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7월 시행)
31.③ 32.④ 33.⑤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7월 시행)
37.⑤ 38.⑤ 39.⑤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고전시가(2016년 9월 시행)
16.③ 17.④ 18.④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현대시(2016년 9월 시행)
19.④ 20.③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현대시(2016년 10월 시행)
35.③ 36.⑤ 37.④ 38.④ 39.⑤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고전시가(2016년 10월 시행)
43.② 44.③ 45.②
2017학년도 수능 현대시/회극 복합 (2016년 11월 시행)
27.② 28.② 29.① 30.② 31.④ 32.③
2017학년도 수능 고전시가 (2016년 11월 시행)
43.③ 44.⑤ 45.①

CC BY-NC-ND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저작권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로그인 필요 없는
학습자료 무료 제공 사이트

레전드스터디 닷컴

<http://LegendStudy.com>

레전드스터디 닷컴 '페이스북'

www.facebook.com/LegendStudy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을까?
수시모집 최적화 & 합격을 위한 제언

레전드스터디

입시전략 컨설팅 센터

<http://LegendUniv.com>

해설

** 2016년 3월 고3 모의고사 **

[37~39] (현대시 복합) (가) 고은, 「머슴 대길이」 / (나)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가) 고은, 「머슴 대길이」

어린 시절 고향 마을에서 함께 살았던 '머슴 대길이'에 대한 추억을 노래한 시이다. 화자는 어린 시절에 자신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대길이 아저씨'를 추억하며, 그가 자신에게 '불빛'이 되어 준 소중한 존재였음을 노래한다.

(나) 신경림, 「즐거운 나의 집」

자신이 나고 자란 근원적 공간인 '나의 집'에 대한 인간의 본원적인 애착을 노래한 시이다. '나의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화자는 어른이 되면서 '나의 집'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떠돌게 되지만, 결국 화자는 가족들과 함께한 유년의 따뜻했던 기억의 '그림'에 이끌려 '나의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하게 되었음을 노래한다.

37. [출제의도] 두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와 (나)에는 모두 과거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화자의 목소리가 드러나 있다.

[오답풀이] ② 화자가 소망하는 가상의 상황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대화체의 어조는 (가)에서 일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자신의 일상적 삶을 반성하는 화자의 모습은 두 작품에 모두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두 작품은 모두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면서 시상을 전개하고 있지 않다.

38. [출제의도] 시의 내용을 감상한다.

‘대길이가 아저씨’는 현실 생활에 충실한 삶을 살았으며,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시선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현실 세계를 벗어난 순수한 자연의 세계를 동경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배운 한글을 통해 ‘세상에 눈떴다’는 것은 화자가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② 머슴이었던 ‘대길이가 아저씨’에게 마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길이가 아저씨’를 존중하는 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④ ‘남하고 사는 세상’을 강조한 ‘대길이가 아저씨’의 말에서 이기적인 삶을 멀리하고자 했던 대길이가 아저씨의 가치관이 화자에게 전달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⑤ ‘대길이가 아저씨’가 화자에서 ‘불빛’이 되어 주었다는 것은, 그가 화자에게 삶의 방향을 이끌어 준 인물이었음을 의미한다.

39.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시를 감상한다.

‘할아버지보다도 아버지보다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나는 나의 이 집이 좋아졌다.’고 했으므로, ‘나의 집’으로 이끄는 힘이 더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틀 속’에서 벗어나 살아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사랑방 건넌방 헛간 안방’은 가족들이 머물던 공간이었으므로, 이곳을 오가며 놀이를 즐겼다는 것은 가족들이 감싸주는 공간에서 즐거운 유년 시절을 보낸 화자의 모습을 떠오르게 한다. ② 화자가 ‘이 그림 속’에서 ‘더없이 행복하다’고 한 것은 가족들의 여러 방을 오가면서 즐거운 놀이를 하며 보낸 유년의 따뜻한 기억의 ‘그림’이 화자에게 그대로 남아 본원적인 애착을 유발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③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외지로 떠든 것은 ‘이 틀 속’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했던 화자의 욕망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딴 세상을 헤매다가도 돌아오면 다시 그 자리니’는 화자가 ‘나의 집’을 벗어 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은 근원적 공간인 그 ‘집’으로 심리적인 회귀를 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43~45] <고전시가> 정철, 「성산별곡」

이 가사 작품은 정철이 전남 담양에 있는, 서하당 김성원이 지은 ‘식영정’에 머물면서, 김성원의 삶을 노래한 것으로 알려진 작품이다. 자연 속에 머물며 신선과 같은 풍모를 지닌 ‘주인’(‘산옹’)의 삶을, 사계절의 절경과 옛 고사를 제시하며 노래한 것으로, 정철 자신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는 작품으로도 볼 수 있다. 제시문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나, 서사와 결사를 통해 말을 주고 받는 구조로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는 ‘손’인 ‘정철’과, ‘주인’인 ‘김성원’의 대화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정철’이 ‘김성원’의 삶을 예찬하는 작품으로 볼 수도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을 파악한다.

제시문은 전체 작품 중 서사의 일부와 본사 중 봄과 여름을 노래한 부분으로, ‘매창(梅窓)’의 ‘매화(梅花)’와 ‘도화(桃花)’는 봄을, ‘남풍(南風)’과 ‘녹음(綠陰)’은 여름임을 알게 하는 자연물이다. 삼베옷을 뜻하는 ‘마’의는 신선적 풍모를 드러내는 소재이면서도, 시원한 계절인 여름임을 알게 해주고, 인간 세상의 윤희를 뜻하는 ‘인간 윤희’에서도 계절적 배경이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계절의 변화 양상과 관련하여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철철이’의 ‘철철’은 ‘철(계절)마다’라는 뜻으로 음성 상징이 아니다. 이는 때에 맞게 바뀌는 산중의 경치와 관련된다. ② 이 작품에서는 자연 속에서 신선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느껴지는 한가로운 정취가 드러난다. ③ 과거의 모습을 추론할 수 없고, ‘할 일’은 미래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산중 생활에서의 삶을 의미한다. ⑤ 부분적으로 ‘~나 듯’의 구조가 반복되거나 유사한 시구가 사용되고 있으나, 동일한 시구가 주기적으로 반복되어 있지는 않다.

44.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는 ‘성산별곡’에 인용된 ‘고사’에서 등장하는 ‘소재’를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기를 유도하는 내용으로, <자료>는 제시문에 등장하는 소재와 관련된 고사의 내용이다. 자연을 노래한 가사 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백구(갈매기)’라는 소재는 인간의 무심(無心)을 알아보는 갈매기로서,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무심코 한가함이 주인과 어떠한가’는 ‘백구’와 ‘주인’의 모습이 다르지 않음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료>의 ‘백구’ 고사로 볼 때, ‘갈매기를 잡으려는 마음’은 ‘무심함’이 아니라 ‘욕심’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주인’의 모습을 ‘어부’의 모습과 같은 것으로 연상하는 것은 적절한 감상이 아니다.

[오답풀이] ① ‘산옹’이 ‘외씨’를 뿌리며 산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은, 진나라

가 망하자 벼슬을 버리고 ‘외씨’를 뿌리며 살던 ‘소평’의 모습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② ‘시내 길’에 피어 있는 ‘도화’는 진나라 때 고사에서 유래된, 복숭아꽃이 만발한 ‘무릉 도원’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③ ‘꽃잠’을 자며 느낀 평안함은 중국 전설에 나오는 ‘희황’과 연관된 ‘희황 배개’로 상징되는 태평함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④ 산에 피진 ‘연꽃 향기’는 ‘연꽃’을 소재로 ‘군자’의 덕을 예찬한 송나라 도학자 ‘염계’가 지은 ‘애련설’을 연상케 하므로 적절한 감상이다.

45.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보기>는 ‘강강월’이라는 기녀의 시조 작품으로, 홀로 잠 못 이루는 밤에 등불을 다시 켜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정서를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에서 ‘할 일’은 ‘산옹’이 산중에서 살아가는 한가로운 삶을 뜻하는 것으로,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과업’이 아니며, <보기>의 ‘잔등 돌위는’ ‘나’가 잠도 오지 않은 방에서 사그라지는 등불의 심지를 돌위 다시 밝게 하는 행위로, ‘나’의 외로운 정서를 달래고자 하는 행위이다.

[오답풀이] ① ㉠의 ‘매창’은 방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난 ‘산옹’이 ‘아침별’이 나는 밖의 상황을 알게 되는 통로이며, <보기>의 ‘창’은 방 안에 홀로 잠들지 못하는 ‘나’가 ‘굶은 빗소리’가 들리는 밖의 방 밖 상황을 알게 되는 통로이다. ② ㉠의 ‘아침별’은 ‘산옹’이 맞이하는 아침의 분위기를, <보기>의 ‘기러기 우는 밤’은 ‘나’가 잠 못 들고 있는 ‘밤’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③ ㉠의 ‘향기’는 아침에 ‘산옹’이 일어나도록 자극을 하고 있고, ㉠의 ‘굶은 빗소리’는 등불을 다시 밝히며 잠 못 들고 있는 ‘나’가 더욱 잠이 들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⑤ ㉠이 ‘곧 없지도 아니하다’에서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산옹’의 생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드러나고, ‘더욱 망연하여라’에서는 잠 못 드는 밤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의 슬픔이 드러나 있다.

**** 2016년 4월 고3 모의고사 ****

[34~36]<[고전시가]<출전> 윤선도, 「몽천요(夢天謠)」 / 최 현, 「명월음(明月吟)」

34. [출제의도] 작품 간 공통점 파악하기

(가)의 ‘하늘이 이지러졌을 때 무슨 기술로 기워냈고 / 백옥루(白玉樓) 중수(重修)할 때 어떤 목수 이루어냈고’와 (나)의 ‘단단 환선(團團紈扇)으로 긴 바람 부쳐 내어 / 이 구름 다 겹과다. 기원 녹죽(淇園綠竹)으로 / 일천 장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과다.’를 통해 대구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나)는 ‘매화 한 가지 계영인가 돌아보니, / 처량한 암향이 날 따라 근심한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만 (가)는 계절감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두 작품 모두 대화의 형식이 드러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가)는 인간과 자연을 대비하고 있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두 작품 모두 명령적 어조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35.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이해하기

㉠은 ‘옥황’에게 말하여 묻고자 하는 걱정의 대상인 현실 속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작가가 이들로 인해 임금 곁을 떠나지는 않았기에 적절하지 않다.

① ㉠은 자신을 꺼리고 꾸짖는 대상이기에, 현실 속에서 작가를 질시하는 세력으로 볼 수 있다. 이 세력들로 인해 임금의 부름을 사양했으므로 적절하다. ② ㉠을 ‘내 분수에 읊도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현실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머물고 있는 장소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은 ‘옥황’이 머물고 있는 공간으로 현실 속 임금이 있는 궁궐을 비유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⑤ ㉠은 ‘백옥루’를 ‘중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작가나 인재를 비유한 표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자신의 몸만 비추고 남을 비출 수 없는 ‘금각정’은 화자가 자신의 방에서 담고 있는 대상이므로, 비추지 않는 구멍이 없는 ‘명월’에 비유된 임금의 상황을 비유한 것이 아니다.

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마음먹은 뜻을 사퇴려한 것으로 보아 암담한 시대 현실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달빛이 구름에 가려 옛날의 빛을 잃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처한 상황이 점점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바람을 일으켜 부정적 대상인 ‘구름’을 걷어내

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을 바꾸고 싶은 소망을 드러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⑤ 자신을 미미한 티끌과 흙인 '진토'로 인식한 결과 자신의 뜻을 '허사'라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지리산은 고된 삶 속에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수탈을 당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잃지 않는 농민들의 삶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⑤ '후례자식들이 / 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리 끊임없는 수탈로 고통을 겪을지라도 농민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건강한 삶을 살아나갈 농민들에 대한 믿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43~45] [현대시] <출전> 유치환, 「선한 나무」 / 김용택, 「섬진강 1」

**** 2017학년도 6월 대수능 모의평가 ****

43. [출제의도] 작품 간 특징 비교하기

(가)는 화자가 '언제'인가 길가에서 노송 한 그루를 보고 그 아래에서 노닐다가 '하룻날' 다시 와서 노송이 배어진 것을 발견하고 안타까움을 느끼며, 자신이 노송이 섰던 자리에 서서 허공에 팔을 올려 신운을 느껴 보려 하고, 자신은 느낄 수 없음을 확인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으므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나)는 섬진강이 흘러가는 방향을 따라가며, '토끼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 '영산강으로 가는 물줄기', '결결 웃는 '지리산', '노을 먼 무등산' 등 섬진강 주변의 자연물들에 시선을 주며 시상이 전개된다.

[25~27] 고전시가 (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과정 / (나) 작자 미상, 「동동」, (다) / 작자 미상, 「가시리」

(가) 이 글은 고려 속요의 기원과 형성, 고려 속요가 궁중악으로 용될 수 있었던 까닭, 고려 속요와 「시경」 '풍'의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를 가리킨다. 민간의 노래 중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하면서도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악으로 편입되었다. 고려 속요와 「시경」의 '풍'은 궁중 잔치에서 불렀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고려 속요는 '풍'과 달리 작품의 특정 부분에 형식적 장치를 마련하여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더하거나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특정한 부분을 덧붙이기도 하였다. [주제] 고려 속요의 형성 과정과 특성

② (가)에서 특정 어미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부분은 없으며, (나)에서도 '섬진강물이 어디 몇 높이 달려들어 / 피낸다고 마를 강물이더냐고', '어디 몇 몇 예비 없는 후례자식들이 / 피간다고 마를 강물인가'이라는 구절에 의문의 진술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③ (나)에는 수탈당하는 농민들을 비유한 '토끼꽃', '자운영꽃', '식물도감에도 없는 풀'과 농민들을 수탈하는 대상을 비유한 '후례자식'처럼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가)에 명암의 대비는 드러나 있지 않다. ④ (나)는 섬진강이 흘러가는 모습을 묘사하여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 음성 상징어의 사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가)의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어'의 '추추히'는 '우는 소리가 구슬뜨게'를 뜻하는 말로 음성 상징어는 아니다. ⑤ (나)에서는 섬진강을 의인화된 대상으로 등장시키고 있으나, (가)에서는 친숙한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 않지는 않다.

(나) 이 작품은 현존하는 우리 문학 작품 중 가장 오래된 월령체(달거리) 노래로, 각 달의 특성과 세시 풍속을 통해 정서를 표현한 고려 속요이다. 분장체 형식과 후렴구 사용 등 형태적인 면에서 고려 속요의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 주며 임에 대한 송축과 찬양, 떠나버린 임에 대한 원망과 정한, 그리움 등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주제] 임에 대한 송축과 고독의 비애

44.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이해하기

'중거할 선한 나무 없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는 표현에는 화자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묘막한 천공'에는 여전히 '신운'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노송이 없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묘막한 천공'에 '신운이 없음'을 인지한 화자의 상실감이 드러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다) 이 작품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시적 화자의 슬픈 마음을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이 작품의 화자는 떠나는 임을 적극적으로 붙잡지 못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제] 이별의 정한

① '바람 있음을 조금도 깨달을 수 없는 날씨'는 화자가 자연의 미세한 변화를 느끼지 못함을 나타내고, '추추히 탄식하듯 울고' 있다는 표현은 노송이 흔들리는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 자연의 미세한 변화에 반응하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항상 그 아래 한때를 머물러' 노닐었다는 진술에서는 노송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 그 노송이 배어 넘겨진 상황에 대해 '무참하도' '배어 넘겨'졌다고 표현한 것에서는 자신이 긍정하는 대상이 사라진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노송의 그늘을 '길가에 세워 바람에 울리'는 것보다 '빠개어 육신의 더움을 취'하는 상황은 노송의 실용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애석하여'에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팔을 높이 허공에 올려' 보려는 행위는 노송이 부재한 상황에서 노송이 느껴진 '신운'을 느껴보고자 하는 화자의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유현한 솔바람 소리가 생길 리' 없다고 한 것에는 자신은 노송과 달리 신운을 느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5. 세부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3문단 '이처럼 민간 가요의 궁중 악곡으로의 전환은 하층에서 상층으로의 편입 흡수 과정을 통해 상 하층이 노래를 함께 향유한 화합의 차원으로 볼 수 있다.'에서 하층 노래가 상층 노래에 영향을 준 것임을 알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1문단 '고려 속요는 고려 시대 궁중에서 형성되어 조선 시대까지 궁중 연향에서 전승되어 불린 노래'에서 알 수 있다. ② (가)의 2문단 '풍'에 실린 노래는 중국은 물론 고려와 조선의 궁중 잔치에서도 불렀다. 또한 조선의 궁중악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연향 악곡을 선정'에서 알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 "'풍'에는 민간의 노래가 실려 있는데 사랑 노래가 대부분'이라는 부분과 3문단 '이때 그 과정에서 민중의 생활상을 진솔하게 반영한 노래 가운데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 궁중 악으로 편입'이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다. ⑤ (가)의 3문단 '인륜의 차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노래들은 통치 질서를 구현하기에 적합한 노래로 여겨져'와, '남녀 간의 사랑 노래는 그 화자와 대상이 신하와 임금의 구도로 치환되기 용이했기 때문에 궁중악으로 편입될 수 있었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45.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하기

'그을린 이마'는 농촌의 고된 상황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그들의 그을린 이마에 흰하게 '꽃등'을 달아주는 것은 고달픈 삶을 영위하는 농민들에 대한 위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꽃등이 농민들의 고된 삶을 부각하는 소재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26. 작품의 종합적 이해

정답해설 : (나)의 <서사>에서 '아오 동동다리'는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로 볼 수 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궁중 연향을 고려하여 덧붙인 내용으로 임에 대한 송축(경사를 기리고 축하함)을 노래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나)의 '아오 동동다리'는 <서사>, <정월령>, <이월령>, <삼월령> 등에 반복되는 형식적 장치로, 작품 전체에 통일성을 부여하는 후렴구이다. 그러므로 ㉠의 예로 볼 수 있다. ② (나)의 <서사>에서 '아오 동동다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임에 대한 송축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④ (다)의 '위 중즐가 대평성'은 후렴구로 노래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 ㉠의 예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제1연에서 '위 중즐가 대평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별의 상황과 관련이 있으므로 ㉠의 예로 볼 수 없다.

①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는 개울물은 고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생활하며 삶을 포기하지 않는 농민들을 나타낸 것으로, 농민들의 끈질긴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③ '빠 으스스리게 그리워 얼싸안'는 것은 끊임없는 수탈로 인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공동체적 삶을 통해 고통을 감내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고된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저문 강물에 얼굴을 씻고 / 일어서서 결결 웃'는

27.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의 제1행과 제2행은 물수리 한 쌍이 모래톱에서 우는 정경을 제시

**** 2017학년도 9월 대수능 모의평가 ****

한 것으로 시적 대상이 변화한 것이 아니며 대칭 구조로 볼 수도 없다. (다)의 제1연과 제2연도 시적 화자가 떠나는 입에 대해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시적 대상의 변화에 따른 대칭 구조를 찾을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4문단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조화로우음을 노래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를 통해 [A]에서 자연과 인간 간의 조화로우음이 드러난 것을 알 수 있다. (나)의 <정월령>은 정월의 냇물과 비교하여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처지를 노래하고 있으므로, 남녀 간의 사랑으로 인한 외로움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A]의 '물수리 한 쌍'은 조화로우음과 관련된, (나)의 '만춘 들릿꽃'은 타인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긍정적 가치를 지닌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③ [A]에서는 짝을 지은 물수리 암수의 모습과 앞으로 짝을 지을 요조숙녀와 군자의 모습을 통해 화평하고 즐거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다)에서는 입과 시적 화자 간의 이별의 상황을 보여 주고 있다. ⑤ (가)의 4문단에서 [A]를 두고 '부부 간의 화락과 공경', '풍속 교화의 시조'라는 평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으므로 [A]가 풍속을 교화할 만한 이상적인 사랑을 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의 <이월령>에서 '높이 권 등불'에 빗대어 입이 모두가 우러러 볼만한 '덕'을 지녔음을 읊고 있으며, (다)에서는 이별의 상황에서 입에 대한 간절한 연모의 정을 읊고 있다.

**** 2016년 7월 고3 모의고사 ****

[현대시] □ 출전: 서경주, <추천사> / 나희덕, <망팔>

31.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 파악하기

(가)의 '그넷줄'은 화자가 소망하는 이상 세계에 가기 위해, (나)의 '그네'는 노을을 보고 싶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32.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서(西)으로 가는 달'은 '나는 아무래도 갈 수가 없다'의 '나'와 대비되는 대상으로, 현실적 제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와 달리 자유로운 존재로 볼 수 있다.

① '수양버들나무', '풀꽃더미', '나비 새끼 피꼬리들'은 화자가 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고뇌를 일으키는 것들로, 결별해야 할 대상이다. ⑤ '그렇게 나를 밀어올려다오'에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운명적 좌절을 인식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을 계속 지향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다.

33.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위태로움 속에 아름다움이 스며 있다는 것이'는 화자가 계속 겪게 되는 삶의 고통 속에서도 삶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역설적 인식을 표현한 것이다.

② '그러나 살면서 몇 번은 망팔에 서게도 되지'는 화자가 살면서 힘든 시련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함축한 표현이다.

[고전시가 □ 출전: 조찬한, <빈천(貧賤)을 팔려고~>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37. [출제의도] 표현상의 특징 파악하기

(가)에서는 '누가 먼저 하자고 하겠는가'를 통해 이혜타산에 밝은 세태를, (나)에서는 '장부 뜻을 바꿀런가', '일단심을 잊을런가' 등에서 화자의 의지적인 태도를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강조하고 있다.

② (가)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찾아볼 수 없다. ④ (가)와 (나) 모두 감정 이입이 쓰이지 않았다.

38. [출제의도] 시구의 의미 파악하기

⑥은 '화자 자신의 분수'를 뜻하는 표현으로, '내 본인 줄 알리로다'라는 대목을 통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② 화자는 '설 테운 능'으로 허기를 채울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부 뜻'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39.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하기

(가)의 화자는 '강산과 풍월'을 지키고자 하는 모습을, (나)의 화자는 '안빈 일념'을 품고 '일단심'을 잊지 않겠다는 모습을 각각 보인다. 특히 (나)에서 화자가 과거에 현실과 타협하려고 했던 모습을 찾기는 어렵다.

④ '일단심'은 일편단심을 의미하므로, (나)의 화자가 '빈곤한 인생' 속에서도 이를 잊지 않겠다는 모습에서 선비로서의 지조와 신념을 지키며 살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16-18] 고전 시가 - 신흠, '방옹시어'

작품해설 : 작가인 신흠이 광해군 때 일어난 계축옥사로 인하여 벼슬에서 물러나 은거하던 시기에 창작한 시조 작품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일반적인 연시조처럼 작품 전체가 긴밀한 연결 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방옹시어'는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표현한 작품들과 자신을 아껴 준 선왕(선조)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을 표현한 작품들로 이루어졌는데, 자연 속의 청빈한 생활과 유교적 층의 사상을 연결하여 품격 있게 표현하고 있다. 제목인 '방옹시어'에서 '방옹(放翁)'은 조정에서 밀려난 노인이라는 뜻으로 작가 자신을 가리키며, '시어(詩餘)'는 시가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속세를 벗어난 전원생활의 경취와 연군의 정

16.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다)는 초장에서 봄비가 내린 후의 정경을, 중장에서 꽃과 버들이 활짝 핀 모습을 제시하고 있고, 종장에서 돌아오지 않는 입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으므로, 선경후정의 전개 방식을 통해 화자의 내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가)는 달빛을 벗 삼아 산촌에서 지내는 심정을 독백조로 노래한 것으로, 대상과의 문답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는 수간모옥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현재 처지에 대한 자족감과 자긍심을 드러낸 것으로, 과거와 대비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라)는 연꽃이 피어 있는 연못가에서 입을 그리워하며 시름에 젖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자연물에 화자의 감정을 투영하는 감정 이입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마)는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입이 찾아오는 소리로 착각하는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대상이 지닌 속성들을 점층적으로 나열하고 있지도 않다.

17.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다)의 '봄빛'은 꽃과 버들이 활짝 핀 것을 비유한 것이다. 화자는 활짝 핀 꽃과 버들을 보며 '화류'도 때를 맞춰 피는데, 입은 가고 오지 않자 탄식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봄빛'은 '입'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로 볼 수 있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눈'은 화자의 은거지와 속세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과는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에 '선조 사후에 정계에서 밀려난'이라는 정보가 있으므로, 화자의 은거는 자발적이지 아니라 타의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② (나)의 종장을 바탕으로 감상하면 '수간모옥'은 화자의 답답한 심정이 투영된 것이 아니라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을 내포한 소재이다. ③ (나)의 '만산 나월'은 은자로서의 자족감이나 자긍심과 연관된 시어로, '님'이 부재한 상황을 절감하는 소재는 아니다. ⑤ (라)의 '부용 당반'이 '님'으로 표상되는 선왕에 대한 그리움과 연모의 정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나, (라)의 종장으로 볼 때 현재 입이 부재하는 상황이므로, 화자가 연모하는 대상과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다.

18.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마)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착각을 야기한 대상이 난초가 자라난 지름길 위의 '낙엽'이라는 것을 제시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보기>의 종장에서는 화자의 착각을 야기한 대상을 봉황이 깃을 다듬는 '그림자'라고 비현실적으로 과장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대상에 대해 비판을 제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마)의 초장에서는 '위석비석'이라는 청각적 자극이, <보기>의 초장에서는 '어려어려큰돌'이라는 시각적 자극이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② (마)의 초장의 '님'이신가 이러 보니'와 <보기>의 초장의 '님'만 너겨 풀썩 너려나 똑딱나서 보니'에서 모두 창밖의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마)의 종장의 '낙엽'과 <보기>의 종장의 '그림자'는 모두 화자의 착각을 불러일으킨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⑤ (마)의 종장에서는 '유한한 간장이 다 단칠까 흐노라'라며 화자 자신의 내면적 고통을 토로하고 있고, <보기>의 종장에서는 '눈 우일 변하여라'라며 화자가 타인의 평가와 조소를 의식하고 있다.

[19-20] 현대시 - (가) 윤동주, '병원' / (나) 박목월, '나무'

작품해설 : (가)는 병원의 풍경에서 본 젊은 여자 환자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그여인의 병과 자신의 병이 닳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병원에서 '가슴을 앓는' '젊은 여자'의 생기 없는 이미지, '찾아오는 이'가 없는

쓸쓸하고 적막한 모습을 보게 된다. '나'의 오래된 아픔의 원인을 모르는 '늙은 의사'의 몰이해에 대해 '지나친 피로'를 느끼지만, '성내서는 안 된다'고 분노를 자제한다. 화자는 여인에게 공감하며 자신과 여인이 모두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본다'. 3연의 산문시 형태로 이루어진 이 시는 대상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시키는 한편, 현장감을 주기 위해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묘사에 의한 시각적 이미지가 돋보인다. **[주제]** 고통과 고독에 대한 연민, 상황 극복의 기원

작품해설 : (나)는 화자가 여행 중에 본 나무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발견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화자는 여행 중 나무에게서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는 모두 고독하고 쓸쓸한 모습이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화자는 이 나무들이 외부의 풍경으로서가 아니라 화자의 내면에 자라나고 있음을 깨닫는다. 화자의 내면에 자란다는 말은, 그 나무와 같이 화자 또한 본질적으로 고독한 존재라는 인식을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화자는 사물을 통해 자신의 삶의 본질을 인식하게 된다. **[주제]** 나무를 통해 깨닫게 된 삶의 근원적 고독

19.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나)에서 화자는 '~일까'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을 '수도승일까', '어슬픈 과객일까', '하늘 문을 지키는 파수병일까'와 같이 변주하여 제시함으로써 나무가 연상시키는 고독의 의미를 심화하고 있다. **정답 ④**

[오답파하기] ① (가)에는 '흰옷', '하얀 다리' 등의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이는 병을 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므로 역동성을 드러낸다고 볼 수는 없다. (나)에는 색채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② (가)에는 '병원', (나)에는 '유성', '조치원', '공주', '온양'과 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벗어난 공간이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이 공간들이 일상의 공간과 대비되고 있지는 않으며, 두 작품 모두 일상의 공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 ③ (가)에는 사물의 속성에 대한 분석이 드러나 있지 않다. 또한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제시되었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 있는 것에 가깝다. ⑤ (가)에서는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현장감을 더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표현을 통해 계절의 상징성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과거형 시제를 사용하여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내면에 대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사물의 변화상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2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가)에서 화자는 병원에서 병을 앓고 있는 '젊은 여자'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여자의 병과 고통, 치유에 대한 소망에 공감하며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다. 화자가 '젊은이의 병'을 모르는 '늙은 의사'를 원망하는 내용은 드러나지 않으며, '여자'와 무엇인가를 공유하고 있지도 않다. (나)에서 화자는 '멀리 서 있는' '나무'들 에게서 외로움을 느끼고, 그들의 고독한 모습과 자신의 내면이 닮아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나무'들과 자신의 거리를 좁히려 하고 있지는 않다. **정답 ③**

[오답파하기]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병원 뒤뜰'에 누워 있는, 병을 앓는 '여자'의 모습을 이야기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의 화자는 유성 → 조치원 → 공주 → 온양 → 서울까지의 여행 중에 본 '나무'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대상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찾는 이가 없는, '가슴을 앓는다는 이 여자'의 처지에서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병원에 온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떠올리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에게서 떠올린 '수도승', '과객', '파수병'의 모습에 비추어 자신의 내면에 묵중하고, 침울하고, 고독한 모습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④ (가)의 화자는 '금잔화 한 포기'를 꽃고 병실로 들어가는 그 여자의 모습에서 그 여자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읽어 내고 '내 건강'이 '속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는 표현을 통해 이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 비추어 자신의 고독한 내면을 깨닫게 되고, '나무'들의 모습이 '외로워보였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정서에 공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여자'에게 공감을 느끼고,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 보는 행위를 통해 '여자'와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있으며, (나)의 화자는 '나무'들에게서 느꼈던 묵중하고 침울한, 고독한 모습이 자신의 내면에 있으며, 이는 벗어날 수 없는 삶의 본질임을 깨닫는다. 이를 '뿔아낼 수 없'는 '나무를 기르게 되었다'고 표현함으로써 '나무'들과 자신의 동질성을 드러내고 있다.

**** 2016년 10월 고3 모의고사 ****

[35 ~ 39] (현대시, 수필) (가)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나) 김수영, 「눈」, (다) 조지훈, 「무국어」

(가) 이용악, 「두만강 너 우리의 강아」

이 시는 일제 강점 하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유랑해야 했던 우리 민족의 아픔을 드러낸 작품이다. 이 시의 화자는 암울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인식과 고향을 떠나가면서 느낀 정서를 '두만강'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나) 김수영, 「눈」

이 시는 '눈'과 '가래'의 대비를 통해 순수한 삶에 대한 의지를 표현한 작품이다. 핵심 구절이 변형 · 반복되는 이 시의 구조는 운율감을 형성할 뿐 아니라 시의 의미를 점층적으로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다) 조지훈, 「무국어」

이 작품은 혹독한 시대 상황에 쫓겨 하는 수 없이 낙향을 해야만 했던 조지훈이 고향에 내려가 쓴 수필이다. '무국어(無國語)'는 국화를 어루만지며 하는 말이란 뜻으로, 작가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화를 통해 위로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수필이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한다.

(가)의 '얼음길은 거칠다', (다)의 '서릿발이 높아지자', '낙엽이 창살을 휘몰아치는 가나긴 가을밤' 등은 모두 계절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작품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에는 음성상징어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나)와 (다)에는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나)에서는 공간의 변화가 드러나지 않는다. ⑤ (가), (나), (다)에서는 상승 이미지나 하강 이미지를 활용하여 역동적인 느낌을 강화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36.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A]에서는 '강아'에서 영탄적 어조를 일부 엿볼 수 있다. 한편, [B]에서 냉소적 어조가 나타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A]에서는 '강'이 의인화되어 있다. ②[B]에는 '기침을 하자' 등의 어구가 반복되고 있다. ③ [A]에서는 '강'을, [B]에서는 '젊은 시인'을 청자로 설정하고 있다. ④ [A]에는 '잠들지 말라'에 명령형 어미가, [B]에는 '기침을 하자'에 청유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다.

37.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비교하여 감상한다.

일제 말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외적 맥락을 바탕으로 두 작품의 유사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의 '밤 우에 밤', (다)의 '지루하고 고달픈' 세월은 모두 부정적 현실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쇠인처럼 수그리고'와 (다)의 '병든 몸으로 숨어서'는 일제 말기의 시대 현실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② (가)와 (다)에서 '두만강'과 '국화'는 각각 시대 상황으로 인해 슬픔을 겪고 있는 화자와 작가에게 마음의 의지가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니는 존재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바람이 이리처럼 날뛴는 강'과 (다)의 '꽃기는 백성의 울부짖음밖에 없는 세상'은 모두 혹독한 식민지 상황과 관련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울 줄 몰라 외롭다'에서는 화자의 외로운 심정, (다)의 '어찌지 못할 설움'에서는 화자의 설움이 나타나 있다.

38. [출제의도] 시의 구조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2연의 '눈더러 보라고'에서 '보라고'의 주체는 '눈'이고 '마음놓고 마음놓고'에서 '마음놓고'의 주체는 '젊은 시인'이다. 그런데 4연의 '눈을 바라보며'에서 '바라보며'의 주체는 '젊은 시인'이다. 따라서 이 두 시구의 의미가 다르며, 둘 사이에 의미의 점층적 강화가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1연에서는 '눈이 살아 있다'는 중심 구절에 수식어가 덧붙어서 각 행이 점층적으로 변주되고 있다. ② 전반부인 1, 2연은 후반부인 3, 4연에서 변주되고 있다. ③ 1, 3연에서는 '눈은 살아 있다'에 '떨어진 눈은',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등의 시구들이 덧붙여져, 2, 4연에서는 '기침을 하자'에 '젊은 시인이여', '눈 위에 대고' 등의 시구가 덧붙여져 변주되고 있다. ⑤ 4연에서 '기침을 하자'와 '가래라도 뱉자'는 동일한 상징적 의미를 같은 통사 구조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반복 변주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진 '밤새도록'

고인 가슴의'와 '마음껏'은 변주의 장치들이다.

39.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한갓'은 '다른 것 없이 겨우'의 뜻이므로, 이는 국화가 자신에게 슬픔을 준다 하더라도, 국화가 주는 위안이 더 크다는 것을 부각하는 표현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43 ~ 45] (고전시가) 윤선도, 「어부사시사」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 작품들을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었다. 이들은 자연을 인간이 지향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치로서의 천리가 구현된 관념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연의 본성을 궁극함으로써 인간의 현실에서 천리를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조를 통해 드러내었다. 17세기의 시조에서도 자연을 천리가 구현된 공간으로 보는 시각은 유지되었지만, 이전 시기의 시조와는 달리 이 시기의 시조에서 현실은 혼탁함과 부조리로 가득한 공간으로 간주되었다. 이들 시조에서 화자는 자연을 통해 천리가 구현되어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진 모습에 몰입하고 그 흥취를 즐기는 가운데 이와는 동떨어진 현실에 거리감을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 이러한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드러낸다. 윤선도의 「어부사시사」는 사계절 어부 생활의 풍류를 노래한 총 40수의 연시조로, 위에서 설명한 17세기 시조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43.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가)의 3문단에서는, 16세기에 이어 17세기의 시조에서도 자연을 천리가 구현되어 질서와 조화를 보여주는 공간으로 보는 시각이 유지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 시기의 시조와 달리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서 천리와 자연이 상호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되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에서, 현실의 혼란을 목격한 17세기 사대부들의 시조에는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가)의 2문단에 의하면, 자연을 지향함으로써 현실의 변화가 가능하다는 16세기 시조의 인식은 당대 사람들의 낙관적 전망에서 비롯되었다. ④ (가)의 1문단을 통해 사대부들이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에서 자연을 관념적 공간으로 보는 인식을 드러내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후의 내용을 통해 16, 17세기 사대부들의 이와 같은 자연관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에서, 조선 시대의 사대부들은 자연을 소재로 한 시조를 통해 자연과 현실의 관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이해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A]의 초, 중장에서는 '청산'과 '유수'에서 파악되는 자연의 영원불변함에 대한 감탄을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분을 천리를 구현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한탄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② 1~2문단의 내용에 근거해 볼 때, '청산'과 '유수'는 각각 오랜 시간 동안 푸르름을 유지하며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흐른다는 점에서 천리의 영원불변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이러한 속성은 곧 인간이 지향하고 추구해야 할 보편타당한 이치와 관련된 자연의 본성이라 할 수 있다. ④ 2문단의 내용에 의하면, '청산'과 '유수'의 속성을 '우리'와 연결한 것은 자연에 구현된 천리를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치와 동일시하는 작가의 시각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우리'도 자연의 속성을 닮았다는 의지를 드러낸 중장의 내용은 (가)의 2문단에서 언급되었듯이 현실에서도 천리를 구현하겠다는 태도와 연결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한다.

<춘 4>에서 안개 속에서 들락날락하며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묘사된 '어촌 두어 집'의 모습은 '벽구기'와 '버들숲'을 배경으로 '운간 고기 튀노'는 자연물의 모습과 조화를 이루는 어촌 풍경의 일부이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대조를 이루면서 현실의 혼탁함을 부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춘 1>에서 자연의 봄 풍광은 각각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것으로 제시되어, 자연의 질서와 조화를 드러내고 있다. ③ <하 6>의 '만고심'은 화자가 '수조가'를 부르면서 어부 생활의 풍류를 즐기는 가운데 느끼게 되는 근심으로, 이는 자신이 즐기는 자연의 질서와 조화가 결여된 현실을 떠올리고 느끼는 화자의 심리로 볼 수 있다. ④ <추 2>에서 화자는 '고기마다 술저 인'는 가을의 어촌 풍경에 감탄하며 '만경 정파'에서 실컷 즐기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추 2>의 중장에서 '인간'은 '수국'과 대조적인 공간으로, 멀수록 더욱 좋은 것으로 인식되는 부조리한 현실을 의미한다.

****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

[27~32] 현대시 - (가) 김수영, '구름의 파수병' / (나) 이강백, '느낌, 극락같은' 지문해설 : (가)는 시를 통해 진정한 자유를 추구했지만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했던 김수영 시인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담겨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신을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여긴다. 화자는 이러한 '반역된 생활'에 몰두하는 자신을 반성하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는 모르지만 '반역의 정신'을 향해 살아갈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리하여 생활을 위해 시에서 멀어졌던 화자는 다시 자유를 노래하는 시인이 되기 위한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진정한 시를 쓰기 위한 진지한 자기 성찰

(나)는 불상 제작에서 형태와 내용을 둘러싼 인물들 간의 갈등을 통해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는 작품이다. 부처의 모습(형식)을 중요시하는 동연과, 부처의 마음(내용)을 중요시하는 서연 사이의 갈등을 중심으로 함포진과 그의 딸인 함이정, 함이정의 아들인 조승인의 3대의 인물이 동연, 서연과 얽혀 있는 관계가 맞물리면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식과 내용, 이 두 요소가 상호 균형을 이루어야 비로소 예술적 완성에 이르게 된다는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주제]** 예술의 본질적 가치 추구

27. 작품의 내용 파악

정답해설 : (가)의 화자는 3연에서 '만약에 또 어느 나의 친구가 와서 나의 꿈을 깨워주고 / 나의 그릇됨을 꾸짖어 주어도 좋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나의 친구'의 방문을 받았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나의 친구'의 방문으로 자신의 삶이 '그릇됨'을 자각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가)의 화자는 1연에서 '만약에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다고 하자 /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2연에서 '먼 산정에서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식'과 '아내', 그리고 '주위'의 '물건들'까지 살펴 보면서 자기의 생활을 성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4연에서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는 / 철 늦은 거미같이 존재 없이 살기도 어려운 일'이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고생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세상'에서 '존재 없이' 살기가 어렵다고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가)의 화자는 6연에서 '시를 배반하고 사는 마음이며 /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시인처럼 비참한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의 나체를 더듬어 보고 살펴볼 수 없는' 비참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⑤ (가)의 화자는 1연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8연에서 '시를 반역한 죄로 / 이 메마른 산정에서 오랫동안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구름 / 그리고 그 구름의 파수병인 나'라고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자는 자신이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으며, 그것을 '죄'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구름의 파수병'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8.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3연의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 '이미 정해진 물체'는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로 볼 수 있다. <보기>에서 ㉠은 시선을 고정하려는 태도로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2연의 '잡스러운 물건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는 대상이므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에서는 생활에 시선을 고정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이미 정해진 물체만을 보기로 결심하고'가 ㉠과 ㉡의 갈등을 해소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보기>에 따르면 「구름의 파수병」에는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의 진솔한 자기 성찰이 드러난다고 하였다. 1연의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화자가 '나라는 사람을 유심히 들여다본' 결과에 해당한다. 따라서 '시와는 반역된 생활을 하고 있다'에는 화자의 진솔한 성찰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에 따르면 화자는 '생활에 몰두하려는 자아(㉠)'를 극복하고자 하면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자아(㉡)'를 등장시킨다고 하였으며,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날아간 제비'를 떠올리다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고 하였다. 7연의 '어디로든 가야 할 반역의 정신'은, 화자가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데 다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신을 '어디로든 가야 할' 존재로 여기는 것은 ㉠에서 ㉡으로 나아가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에서 벗어나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의 정신'을 추구하는 데 이른다 고 하였다. 따라서 화자가 '메마른 산정'에서 '반역의 정신'을 지향하는 것은 화자가 ㉡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바라 할 수 있다. ⑤ <보기>에 따르면 ㉠에서 ㉡으로 변모하고자 하는 화자는 '반역

의 정신'을 추구하는데 이른다 고 하였다. 화자가 ㉠에서 ㉡으로 변모하면서 '매마 른 산정'에서 '구름'을 '꿈도 없이 바라보아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구름 의 파수병'은 시와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던 화자가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시를 새롭게 지향하려는 의식이 반영된 이미지라고 할 수 있다.

29.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해설 : [A]에서 화자는 '방 두 칸', '마루 한 칸', '말쭙한 부엌', '애처로운 처'를 나열하면서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A]는 대상을 나열함으로써 화자의 정서가 촉발된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B]에서 함이정은 개울물을 바라보면서 '얼굴', '얼굴 뒤편 구름', '구름 뒤편 하늘'과 같이 물 위에 비쳐 보이는 대상들을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있 으며, 물을 마시며 맑고 시원함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B]가 의미가 확장되는 대 상들의 연쇄를 통해 함이정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A]의 대상들은 '남과 같이 살아'가기 위한 평범한 삶의 조건들을 의미하는데, 화자는 이러한 조건들을 갖추고 살아가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다. 따라서 [A]의 대상들이 화자의 만족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B]의 대상들은 개울물 위에 비 쳐 보이는 것들일 뿐 함이정의 불만을 드러낸다고 할 수 없다. ④ [A]에 제시된 대상들은 화자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화자는 이러한 대상들을 거느리고 '외양만이라도 남과 같이 살아간다는 것'을 쑥스러워하고 있으므로 [A] 에서 화자와 대상들 간의 연속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다. [B]에서 함이정은 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과 서연의 얼굴을 '우리 얼굴'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B]에서 인물 간의 단절감이 암시된다고 볼 수 없다. ⑤ [A]와 [B]에서는 대상의 속성을 반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다.

30. 갈래별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에서 '상복'을 입고 있던 함이정과 조승인이 '밝은 색 옷'을 입으면서 함 이정과 조승인이 서연의 장례식을 치르던 장면에서 서연과 동연이 서로의 예술관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는 장면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① ㉠에서 한 가운데 있던 천막이 무대 위 천막으로 올라가게 되면 분리되어 있던 공간이 통합되게 된다. 그러므로 무대 장치의 이동으로 극중 공간 을 좌우로 분리시킨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에서는 조명을 통해 개울물 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장면에서 개울물은 이 세상과 저세상을 분리하는 상징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는 조명 변화를 통해 개울물에 주목하게 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들의 갈등 해소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의 뒤에서는 함묘진이 피아노 옆을 지나 개울물을 건너가는 행동이 나타나므로 ㉠는 등장인물이 무대 안에서 피아노로 음향 효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에서는 인물의 다급한 행동이 나타나 있으므로 ㉢가 소품을 이용해서 극적 긴장 감을 완화시킨다고 할 수 없다.

31.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해설 : (나)에서 '돌부처'를 만들며 가는 '길'은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한 서연의 예술관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이 공간 은 '하늘'과 대비되는 공간이 아니며, 조승인이 작곡을 하고 있는 장면은 서연과 함이정이 개울물 양쪽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장면과 연결되므로 이 '길'은 서 연의 예술관이 조승인에게 전수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① (가)의 6연의 '거리에 나와서 집을 보고 집에 앉아서 거리를 그리 던 어리석음도 이제는 모두 사라졌다 보다'에서 화자는 '생활'을 상징하는 '집'과 '시'를 상징하는 '거리' 사이에서 방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집'과 '거리'는 '생활'과 '시' 사이에서 갈등하며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했던 화자에게 대비적으로 인식되었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② (가)의 2연의 '먼 산정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나의 자식과 나의 아내와 / 그 주위에 놓인 잡스러운 물건들을 본다'에서 화자는 '먼 산정'으로 상징되는 가상의 공간에서 자신의 생활을 들여다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먼 산정'은 화자의 생활공간과 대비되는 공간으로서 화자가 자신의 현실을 응시하게 위해 상징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③ (나)의 '작업장'에서는 불상 제작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서연과 동연의 대립이 나타나 있다. 따라서 '작업장'은 불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동연과 서연의 예술관이 부딪 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나)에서 개울물의 '이쪽'은 이 세상을, 개울물의 '저쪽'은 저세상을 상징한다. 그런데 '극락문이 열렸다! 극락문이 열렸어!'라고 외 치며 서연의 뒤를 따르는 함묘진의 행동을 고려할 때, 서연이 향한 개울물 '저쪽' 은 단순히 저세상을 의미하는 공간을 넘어서서 예술의 본질을 추구하던 서연이 도달하게 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32. 대화의 특징 파악

정답해설 : "할아버지 목적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조승인의 대사는 이후에 등장 하는 함묘진, 동연, 서연 사이의 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할 아버지 목적은 왜 저렇게 커요?"라는 대사에서 조승인이 등장인물의 행동을 평하

면서 다른 인물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그런데 어느 날, 스승인 아버님이 ~ 두 제자들이 자릴 비우고 없었어."라는 대사 이후에 극중 사건은 현재에서 서연과 동연이 갈등하던 과거로 전 환되고 있다. ② "동연아! 서연아! 어디 갔느냐?"라는 대사에 등장하는 동연과 서연 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에 등장하는 함묘진의 두 제자이다. ④ "서연은 쓸데없는 주장으로 저를 괴롭힙니다."라는 대사를 통해 동연과 서연이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다. 따라서 동연은 '어머니의 처녀 시절' 이야기 속갈등의 한 축임을 알 수 있다. ⑤ "둘로도 부처님을 ~ 안 될 건 없지."라는 대사를 통해 서연은 어떠한 재료로도 부처의 모습이 아닌 부처의 마음을 추구하던 자신의 예술관을 구현해 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서연은 예술에서는 형식이 아닌 내용이 중요하 다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전달하는 인물 중 하나임을 알 수 있다.

[43~45] 고전 시가 - 홍순학, '연행가'

작품해설 : 조선 말기 홍순학이 1866년(고종 3년) 3월에 왕비 책봉을 주청하기 위한 사신 일행의 서장관으로 연경(북경)에 다녀온 후에 지은 장편 기행가사이다. 작가는 4월 9일부터 8월 23일까지 총 133일 동안 견문한 내용을 시간과 여정에 따라 상세 하게 기록하고 있다. 작가가 견문한 것들을 사실적이면서 생생하게 그려 내고 있어 서 당대의 청나라 문물과 문화적 현실을 잘 알 수 있다. 지문의 내용은 사신 일행이 청나라 황궁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하여 황제의 상을 하사받고 잔치를 마친 후 날 짜를 정해 조선으로 귀국할 때의 감회를 노래한 것이다. **[주제]** 사신의 일행으로 청 나라를 다녀온 견문과 감상

43. 표현상 특징 파악

정답해설 : 이 글에서 연행을 하는 화자는 청나라에서 자명종, 자명약 같은 낯선 풍물을 접하고, 청나라 사람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필담을 나누고, 황궁의 공식적 인 행사에 참여한 체험에 대한 다양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회한 날짜를 정해 귀국할 때의 시원하고 상쾌한 심정을 서술하고 있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① 자연의 경이로운 풍광에 대한 감상을 장황하게 서술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② '당연(唐硯)에 먹을 갈아 ~ 시진지(詩箋紙)를 빼어 들고'를 학문 과 관련한 사물을 나열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은 필담을 위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지 화자의 입신양명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④ 청나라 황 궁의 공식적 행사에 참여한 것은 맞지만 이 글에서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사람들의 외양과 감정을 묘사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⑤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를 구체 적인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승문문 내달아서 통주로 향해 가 니'로 볼 때 화자는 귀국하는 도중이지 여정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44. 구절의 의미 파악

정답해설 : ㉠은 '을 적에 심은 곡식 추수가 한창이요'라는 가을의 계절감을 드러 내는 표현을 통해 '을 적(청나라로 출발할 때)'에서 시간이 한참 경과되었음을 보 여주고 있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① '절로 울어 소리하며'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으나, 이것은 대상이 지닌 슬픔을 표현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이편저편'이라는 지시적 표현 을 사용하였으나 상대와의 친밀감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고급 목재로 된 의자에 마주 앉은 상황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행의 '처음 인사'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은 귀국 준비를 위해 바쁘게 짐을 싸고 있는 것이지 여유로운 분위기를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분분하고'는 음성 상징어가 아니라 형 용사로, 때들썩하고 뒤숭숭한 상황을 나타낸다. ④ ㉠의 앞 구절과 뒷 구절을 대 구적 표현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새로운 계획을 마련한 기쁨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5. 감상의 적절성 평가

정답해설 : [A]의 '간담을 상용하여'는 상대방에게 마음을 터놓는 상황으로 경계 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며, [B]의 '뜰에 내려 복향하여'는 청나라 황제에게 사례 하는 모습으로 상대방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② [A]의 '거기 사람 처음 인사 차 한 그릇 갖다 준다'와 [B]의 '황 상이 상을 주사 예부상서 거행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A]에서는 '필담'을 통해 서로 간에 간곡한 정을 전달하고 있으며, [B]의 '구고두'는 청나라 시대에 황제에게 머리를 조아려 절하는 공식적 예법으로, 황상(황제)이 조선 사신 일행에 게 상을 주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은혜에 의례적인 감사를 표하는 것이다. ④ [A]의 '글귀 절로 오락가락'은 필담을 통해 비로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상황 을, [B]의 '비위가 뒤집혀서'는 푸짐한 잔치상을 받았으나 막상 먹을 것이 없는 곤란한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⑤ [A]의 '귀머거리 병어린 듯'은 언어가 같지 않 아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을, [B]의 '매밀떡에 밀다식에 걸밥'은 음식을 나열하여 잔치상에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놓은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